

## 가 신경계 질환

### 45 주물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치매

성별	남성	나이	61세	직종	용접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2013년 4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5년 1월 21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기억나질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 방문 후, 혈중납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소견과 상기 증상을 기반으로 종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 받았다. 근로자는 자신의 질병이 작업장 근무시 노출되었던 중금속, 분진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2015년 8월 20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9월 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직업병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73년 4월부터 약 4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77년 7월부터 약 6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83년 7월부터 약 29년간 □사업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사업장에 2013년 4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015년 2월에 질병 발생하였다. 근로자는 주업무인 기계수리 및 예방점검 작업 시 용해로 주변에 비산되는 금속류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1주일에 6일을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보조업무인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을 실시하였고 평균적으로 1주일에 약 3~4회 정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일부 사무업무도 병행하였다고 한다. 1회 용접시 1~4시간 가량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는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용접흠 및 망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해부학적 분류

- 신경계질환

### 4 유해인자

- 중금속

###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1973년도부터 주물공장에서 42년간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5년 1월 21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본인이 했던 행동과 말이 기억나질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가 있어, 병원 방문 후, 여러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특별한 기질적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혈중납 농도가 일반인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소견과 증상을 기반으로 종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 받았다. 2007년부터 고혈압 진단 받고, 약물 복용 중에 있다. 음주는 1주일에 2-3회, 1회 음주량 소주 반 병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하루 1갑씩 40년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73년부터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용접작업, 납, 망간, 알루미늄 등이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부족하다. 42년간 주물공장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하며, 용해로 등에서 납 등에 간접 노출되고, 용접 작업 수행 중 장기간에 걸쳐 용접흠 및 망간에 노출되었으나, 혈중납 농도가 정상인 점과 용접업무를 전체 업무 중 20%에서만 수행한 것을 고려할 때,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